

신천지 신도 1만명 몰린 전남 동부권 비상

순천·여수서도 코로나 19 확진...신천지 교육생 1명도 1차 양성

순천·여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전남 동부권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달 15~16일 대구에 머물렀던 20대 여성, 같은 기간 대구 신천지집회를 참석한 20대 남성이 28, 29일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다. 1일 오후 여수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육생 1명이 민간의료기관 검사에서 1차 양성 판정을 받고,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최종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추가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

전남 신천지 교인 1만6000여명 가운데 여수·순천·광양에만 신도가 1만여명 쏠려 있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까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전남 2번째 환자는 순천에 사는 25세 여성이다.

지난 15~16일 대구 방문 후 27일 기침과 인후통 등 증상으로 검사를 받아 지난달 28일 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성은 민간 검사기관에서 1차 양성 판정이 나오자 전남대 음압병실에 격리 입원처리 됐고, 이날 밤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 2차 검사에서 최종 확진 판정 받았다. 이 환자의 남자친구도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순천 한 병원 간호사로 알려진 이 환자는 대구에서 확진자가 쏟아진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달 21일 대구 방문 사실을 병원 측에 알린 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출근은 멈췄으나 증세 발전 전 날인 지난달 26일에만 도보와 택시, 자가용을 이용해 순천 하나로약국, 화장품점(에뛰드), 순천 해룡면 뽕부스 카페, 순천 벽오동 음식점, 여수 낭만포차 등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전남 2번 환자 동선인 자택, 근무처, 식당, 카페 등에 대한 휴업 및 방역 조치를 단행했다. 접촉자 13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19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신천지와 관련해 전남도 관계자는 “이 환자는 신천지 측이 제공한 신도 명단에 들어 있지 않다”고 했으나 관련성 여부는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여수시와 순천시에 마스크 4만 개와 손소독제 2000개를 긴급 지원했다. 이외에도 전남도교육청에 마스크 1만 개, 도서지역 응급환자 후송과 파출소 비치를 위해 목포해양경찰서에 마스크 3000개와 손소독제 100개, 육군 보병학교(장성 소재)에 마스크 5000개와 손소독제 300개를 긴급 지원했다.

이 환자는 지난달 16일 신천지교회 대구 집회에 참석 후 나흘 후인 20일 여수 본가로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21일 컷볼 증상으로 여수 학동 조은이비인후과

방문후 푸른약국, 이바담감자탕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 동구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자로 통보 받아 집에 머무르다가 대구 동구보건소 요청을 받고 28일 새벽 집을 방문한 여수시 방역당국의 검사에 응했다. 가족 4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전남도는 순천·여수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며 접촉자 추가 분류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이날 여수시와 순천시에 마스크 4만 개와 손소독제 2000개를 긴급 지원했다. 이외에도 전남도교육청에 마스크 1만 개, 도서지역 응급환자 후송과 파출소 비치를 위해 목포해양경찰서에 마스크 3000개와 손소독제 100개, 육군 보병학교(장성 소재)에 마스크 5000개와 손소독제 300개를 긴급 지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순천·여수=김은중·김창희 기자 ejkim@

전남도, 코로나 확산방지 모든 가축시장 휴장

AI 등 가축질병 방역 연장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상황이 안정 될 때까지 도내 모든 가축시장을 휴장하기로 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전남도내 가축시장으로 경북 등 타 시도 상인 등이 가축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선제적으로 도내 15개 가축시장을 휴장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불가피하게 출하 시기에 도달한 가축을 거래해야 할 경우, 지역축협이 판매 희망 농가의 신청을 받아 축산물 유통·판매업자와 농가를 연결해 가축판매를 대행함으로써 농가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경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코로나19로 인해 축산

농가도 가축 출하 지연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당분간 교육, 행사 등 집단모임을 자제해 코로나19 저단을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조류독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기간도 3월말까지 긴급 연장하기로 했다. 구제역이 인접 국가인 중국·러시아 등에서, AI 역시 대만·중국 등 주변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ASF는 강원도 화천, 경기도 연천지역 야생멧돼지에서 계속 검출되고 있다.

전남도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등 엄중한 사안으로 인해 가축방역에 소홀하지 않도록 구제역 백신 접종을 철저히 하고, 고병원성AI 방역을 위해 전통시장, 종로리, 종계·산란계 등의 검사를 강화해 선제적인 차단방역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코로나, 기온 올라가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어”

하버드대 전염병학 교수 밝혀

봄이 와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잠잠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만, 선부른 기대는 금물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크 립시치 하버드대 전염병학 교수는 “사스(SARS·중증급성 호흡기증후군)가 2003년 여름에 사라졌다는 것은 널리 퍼진 오해에 불과하다”며 “사스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강력한 보건 노력 끝에 통제된 것이지 사라진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바이러스들은 날씨와 관계없이 사람에게 쉽게 전파되는 경향이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가 계절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맞지만, 코로나19가 동일한 성향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경고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할 것이라고 보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기대와는 상반되는 것이다.

CDC 전문가들은 독감 등 다른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계절성을 띠며, 봄과 여름이 다가오면 코로나19 전파가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존스홉킨스 건강보장센터의 아메시 아달자 박사도 코로나19가 사스와는 다른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공적 마스크 판매 첫날인 지난 달 28일 전남지역 읍·면 우체국 220곳에서는 마스크가 10여 분 만에 동이 났다. 이날 마스크를 사기 위한 긴 행렬이 이어진 담양대천우체국.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전남 221개 읍·면 우체국서 마스크 9만개 판매

11시부터...물량 적어 혼선 불가피

중기유통센터 광주역서 내일 판매

2일 전남지역 221개 읍·면 우체국에 마스크 8만8400개를 판매한다. 판매시간은 기존 오후 2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앞당겼고 관서당 공급물량을 400개(5개입 80세트)로 늘렸다. 전남지방우정청은 221개 읍·면 우체국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1인당 구매 수량은 5개로 제한하며 개당 가격은 판매 첫날보다 200원 오른 1000원이다.

군정이 있는 대단위 읍 우체국은 판매처에서 제외한다. 우정사업본부는 판매처 및 판매수량 등 정보를 전남 오후 6시 이

후에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인터넷우체국 등에 게재할 계획이다.

공적 마스크 판매 첫날인 지난 달 28일 전남지역 읍·면 우체국 220곳에서는 마스크가 10여 분 만에 동이 났다. 1곳당 공급된 물량은 350개(5개입 70세트)였다. 판매 첫날 ‘축산가거도우체국’은 이날 기상 여건이 악화돼 마스크가 공급되지 못했고, 오전 영업한 한 ‘강진 읍면우체국’은 주어진 물량의 절반을 판매했다.

농협 하나로유통은 지난 달 29일 오후 2시부터 광주 32개·전남307개 등 지역 하 나로마트 339곳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역 소비자들은 허탕을 쳤다.

광주·전남지역 판매처는 서울·경기지역

을 제외한 전체 판매처(1886개·인전 포함)의 18% 수준이다. 하지만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일부 점포를 제외하고는 마스크가 아예 입고되지 않았다.

광산구 신가동 광주농산물종합유통센터는 29일 1인당 5개 한정으로 마스크 300개를 판매했지만 이는 순식간에 매진됐다. 마스크는 개당 1100~1200원에 팔렸다. 지역에 공급되는 마스크 가격과 제한 수량은 공급 업체가 정한 단계에 따라 다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북구 중흥동 광주역 ‘브랜드K 코너’에서 마스크를 판매했다. 1인당 구매 제한량은 5매이며 마스크 1장당 가격은 1000원으로 책정됐다. /백희준·유연재 기자 bhj@

美, 대구 ‘여행금지’ 권고...한국 자체는 ‘여행 재고’ 유지

대구 최고 경보단계 적용

미국은 지난 2월 29일(현지시간)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피해가 가장 심한 대구에 대해 국무부 여행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로 격상했다. 다만 국가로서 한국 자체에 대한 여행 경보는 3단계 ‘여행 재고’를 유지했다. 또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는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도 여행경보를 ‘여행금지’로 올리고, 최근 이란을 방문했거나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금지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국과 이탈리아의 특정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인 4단계로 격상하는 것을 승인했다”며 “우리는 미국인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이들 지역으로 여행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미국인이 해외로 출국할 때 적용되지만, 출국 자체를 강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국무부 웹사이트를 보면 여행금지 권고하는 4단계 경보지역으로 대구를 특정했다. 다만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 자체는 3단계로 유지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미국으로 오는 개인들의 의료 검사를 조율하기 위해 국무부가 양국과 협력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히고 “우리는 이들 국가와 협력적인 방식으로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 평안·강원도 자택격리만 7000명 육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까지 나서 코로나19가 유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북한이 평안도와 강원도에서만 약 7000명을 사실상 ‘자택격리’ 상태로 감시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일 ‘비루스(바이러스) 전염병을 막기 위한 선전과 방역사업 강도 높여 전개’ 제목의 기사에서 평안남도·강원도에 각각 2420여명, 1500여명 등 총 3900여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조선중앙방송은 북·중 접경인 평안북도에 “3000여 명의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평안북도·강원도에서만 의학적 감시 대상자가 최소 7천명에 달하는 셈이다.

신문은 “의학적 감시 대상자들 속에서 심장병, 고혈압, 기관지염 등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의학적 관찰을 특별히 강화하는 한편 치료도 적극 따라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매체들은 ‘의학적 감시 대상자’의 개념은 명확히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쌀, 식료품 등을 보내 생활 보장 대책을 ‘빈틈없이’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볼 때, 당국의 감시 하에 이동제한 조치 등이 내려진 일종의 ‘자택 격리자’들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망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비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 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公認 2020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30기)	광주교육대학교(21기)
모집/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전반 2020. 3. 6(금) 09:10 (중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20. 3. 7(토) 09:10 (고급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요일 오후반 2020. 3. 6(금) 14:10 (중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20. 3. 7(토) 14:10 (고급반)
모집기간	2020. 1. 23(목) ~ 3. 7(토)	
수업기간	2020. 3. 6(금) ~ 2020. 8. 8(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 ~ 13:00 ·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 각급 학교(병과 후 교육) 강사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예금주: 광주여대) ·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예금주: 광주교대) · 국민은행: 773901-01-476749
원서교부 및 접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062)950-3582~4 · 지도교수(선명공): 010-3614-4160 <p>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 062)520-4243 · 지도교수(선명공): 010-3614-4160 <p>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p>

“공장부지 매매” (급매)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대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 일부 임대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